



로제타넷 기술

부경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김민수



1. 머리말

로제타넷(RosettaNet, <http://www.rosettanet.org>)은 개방형의 e-비즈니스 프로세스 표준을 정의하고 이를 산업전반에 걸쳐 구현하고자 하는 약 500개 이상의 선도적인 기업과 조직들로 구성된 비영리 컨소시엄이며, 해당 컨소시엄에서 계속해서 정의해가고 있는 e-비즈니스 표준 프레임워크를 지칭하기도 한다. 로제타넷 컨소시엄은 1998년 6월 약 40여 개의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 회사들을 중심으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정보기술 회사뿐만 아니라 하이테크 산업의 공급망에 얽혀있는 전자부품(EC: Electronic Components), 반도체 제조(SM: Semiconductor Manufacturing), 통신(Telecommunications) 및 물류(Logistics) 영역의 주요 기업들과 단체까지 참여하고 있으며, 관련된 솔루션 공급자(SP: Solution Provider)들까지 망라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전자상거래 표준의 하나가 되었다.

이 글에서는 로제타넷이 지금까지 보여 왔던 표준화의 노력을 간략히 정리하고, 기술 및 표준화 동향 등을 위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2. 로제타넷 표준의 확산

로제타넷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은 표준화 이슈에 관한 전문 인력, 글로벌 비즈니스의 실무 인력 및 관련 지식 등을 다양한 로제타넷 프로젝트 팀과 프로그램에 제공함으로써 로제타넷의 적용 범위와 대상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고 있다.

출범 초기에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시작된 로제타넷의 표준화 작업은 관련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Intel, Nokia 등의 실무적인 접근으로 인하여 해당 기업들의 공급망 사슬을 타고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주, 유럽, 일본,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중국 및 호주에 있는 지역 로제타넷 사무소들은 해당 지역에서의 로제타넷 도입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2000년 말부터 로제타넷코리아 사무국(<http://www.rosettanet.or.kr>)을 한국전자산업진흥회(<http://www.eiak.or.kr>) 내에 두고 로제타넷의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세미나, 워크숍 및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로제타넷 표준의 확산 전략을 살펴보면 매우 실용적이며 상향적(bottom-up)인 특징을 보여준다. 여타의 전자상거래 표준이 거의 모든 산업 영역에 대해 추상화된 일반 모델로부터 하향적(top-down)으로 체계화해 나가는 접근법을 취하는데 반하여, 로제타넷 표준은 기업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구체적인 실무 프로세스로부터 시작하여 이들을 상향식으로 체계화해 나가는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즉, 이미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술은 적극 수용하여 표준에 반영하며,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여 이를 PIP(Partner Interface Process)이라는 독특한 독립 프로세스로 정리한다. 이러한 PIP들이 기능적 상관관계의 높낮이에 따라 그룹을 지어 세그먼트를 구성하게 되며, 세그먼트들은 기업 간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기능적 측면에 따라 클러스터라는 단위를 구성하게 된다. 즉, 클러스터나 세그먼트는 별도의 표준 명세를 필요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단지 PIP들을 트리형태의 체계로 분류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결국 로제타넷 표준의 확산은 얼마나 많은 PIP들이 다양한 산업 영역의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정의되고 활용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초기에 하이테크 산업을 시작으로 수직적인 표준의 성격이 강했던 로제타넷은 점차 적용 영역을 자동화 설비, 소비자 전자산업, 장

거리 통신 및 물류와 같은 인접 산업으로 수평적으로 확대시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로제타넷에는 8개의 클러스터(클러스터0~클러스터7)에 모두 28개의 세그먼트가 정의되어 있고, 약 110여개의 PIP이 정의되어 있다. PIP의 내용은 꾸준히 버전을 갱신해 나감에 따라 개선되어 가고 있으며, 그 수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

3. 로제타넷의 표준화 전략

로제타넷 글로벌에서 제공하는 백서를 보면 단일한 공급망 내에서 XML 기반의 e-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요소로서 메시징 서비스(Messaging Service), 비즈니스 용어사전(Business Dictionary Structure & Content), 기술 용어사전(Technical Dictionary Structure & Content)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Business Processes (content & choreography)의 네 가지를 꼽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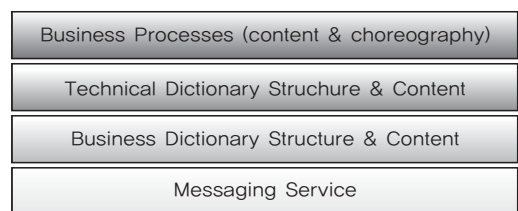


그림 1. XML 기반 e-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기본 요소

메시징 서비스는 e-비즈니스 트랜잭션을 위한 정보가 거래 파트너들 사이에서 어떻게 물리적으로 패키징(Packaging)되고, 전송(Transfer)되며, 라우팅(Routing)되는지를 명세하는 것으로, 이를 줄여서 보통 TRP라 부른다. 이론적으로는 동일한 메시징 서비스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면 기업들이 속한 공급망의 종류에

무관하게 거래 파트너들 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공통의 메시징 서비스가 정의된다면, 거래 파트너들은 전송되는 비즈니스 메시지의 내용을 업계 공통의 비즈니스 및 기술 용어를 통해 표현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그림 1]에서 두 번째 및 세 번째 계층에 해당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래 파트너들 간의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정의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거래 파트너들이 따라야 하는 일련의 메시지 교환 절차와 개별 메시지 내용의 구조 및 형식들에 대한 정의가 포함된다. 이것을 보통 대화(dialog) 혹은 구성(choreography)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실제로 기업은 단일 공급망 내에서만 비즈니스를 진행하지는 않으며, 여러 유형의 공급망과 연결되어 있으며, 종종 여러 산업 영역에 걸쳐 e-비즈니스를 진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특정 공급망이나 산업경계를 넘어서서 공급망간의 혹은 이종 산업 영역간의 상호호환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처럼 공급망 유형을 초월한 범용의 e-비즈니스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단일 공급망 내에서의 4가지 기본요소를 보다 일반화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 로제타넷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그림 2]에서와 같이 9개의 구성요소를 언급하고 있다.

범용 메시징 서비스(Universal Messaging Service)의 경우는 앞서 언급된 메시징 서비스와 같이 TRP를 규정하는 요소로서, 일련의 비즈니스 콘텐츠들이 거래 파트너들에게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기 위한 전자서명, 패키징, 전송 및 라우팅 규약을 담게 된다. 로제타넷의 출범 초기에는 여타의 수평적인 e-비즈니스 표준에서 신뢰할 만한 범용의 메시징 서비스가 정의되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로제타넷 구현 프레임워크(RNIF: RosettaNet Implementation Framework)라는 독특한 메시징 서비스 요소를 자체적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초기의 RNIF 1.1은 보다 개선되어 현재는 RNIF 2.0이 발표되어 있는 상태이다. 차츰 다른 e-비즈니스 표준에서 제시하는 메시지 핸들링 시스템들의 저변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로제타넷에서도 이를 적극 수용하기 위하여 ebMS나 WS-I Basic Profile 및 AS/2로의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범용 레지스트리 및 저장소(Universal Registry & Repository Structure)는 기업들이 자신을 파트너 회사에 소개하며, 역으로 파트너 회사를 어떻게 검색하고 그들의 역량을 파악하여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공통의 등록 공간이다. TPA(Trading Partner Agreements)도 바로 이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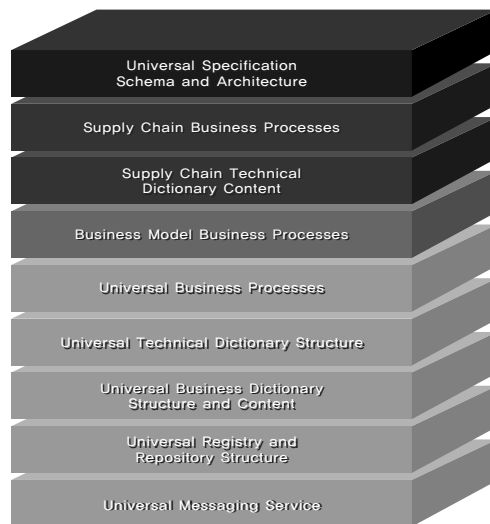


그림 2. 범용의 XML 기반 e-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기본 요소

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로제타넷 자체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으며, ebXML 주도하에 진행되는 표준화 진척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UDDI를 지원할 단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범용 비즈니스 용어사전(Universal Business Dictionary Structure & Content)은 e-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사용되는 모든 콘텐츠 필드, 메시지 구성 요소, 제약조건, 제품 코드 목록들을 망라하는 것으로 비즈니스 문서 내에 존재하는 비즈니스 콘텐츠, 속성 및 관계들에 대해 기술한다. 로제타넷에서는 이미 로제타넷 비즈니스 용어사전(RNBD: RosettaNet Business Dictionary)이라는 정보기술, 전자부품 및 반도체 제조 공급망에 걸쳐 사용되는 범용의 비즈니스 용어사전을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로제타넷은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개선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ebXML Initiative 진영의 핵심 컴포넌트 스펙(Core Component Specification)의 활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있다.

범용 기술 용어사전(Universal Technical Dictionary Structure)은 산업 영역에 무관하게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도 그 형태와 기능 및 사양 등을 기술하기 위한 구조를 정의하는 요소로, 이미 SI2와 함께 개발한 로제타넷 기술 용어사전(RNTD: RosettaNet Technical Dictionary)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이전의 EC 기술 용어사전(EC Technical Dictionary)과 IT 기술 용어사전(IT Technical Dictionary)을 통합하여 하이테크 산업을 위해 발전시킨 것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킬 계획에 있다.

범용 비즈니스 프로세스(Universal Business Processes)는 여러 지역과 비즈니스 모델들 그리고 다양한 공급망에 걸쳐서도 실행될 수 있는 공통의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최소의 특성을 정의하는 것으로 로제타넷에서는 현재 다양한 유형의 공급망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범용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발 중에 있다. 물론 이와 관련한 여타 B2B 표준의 진척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태이다.

비즈니스 모델의 비즈니스 프로세스(Business Model Business Processes)는 특정 비즈니스 모델을 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정의를 담고 있는 요소이다. 공산품 제조에서의 프로세스와 정보 요구사항이 반도체 공정과 같은 프로세스 기반의 생산업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특정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이 정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로제타넷에서는 하이테크 산업에서 사용되는 다수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발 중에 있으며, NEMI(National Electronic Manufacturing Initiative)와 함께 제조 비즈니스 모델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B2B e-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내에서 각 제품의 형태, 기능 및 사양 등을 기술하는 공통의 속성 집합을 가져야 한다. 이미 로제타넷 기술 사전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PIP 메시지의 작성과 해석 시에 거래 파트너들 간에 공통의 의미를 제공하여 통일되지 않은 용어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로제타넷은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와 JEITA(Japan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ies Association) 등과 함께 IT, EC 및 SM 분야의 공급망을 위한 기술 용어사전을 계속 보강시켜 나갈 계획에 있다.

공급망 비즈니스 프로세스(Supply Chain Business Processes)는 특정 산업이나 공급망 유형별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명시하는 요소이다. 로제타넷은 이미 PIP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진행해 왔으며, 계속해서 IT, EC 및 SM 등의 산업 영역을 위한 PIP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범용 명세 스키마와 구조(Universal Specification Schema & Architecture)는 지금까지 기술해온 모든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특정 공급망 유형에 맞는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실행시킬 수 있는지를 완전하게 정의 및 기술할 수 있게 하는 요소이다. 로제타넷에도 나름대로의 명세 스키마와 구조를 정의해

오고 있지만, ebXML Initiative 진영의 관련된 진척 사항에 대해서도 이를 수용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예의 주시하고 있다.

4. 로제타넷 글로벌의 활동

로제타넷 글로벌에서 로제타넷 표준의 제정과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노력은 크게 마일스톤 프로그램(Milestone Program)과 기반 프로그램(Foundation Program)으로 구분될 수 있겠다. 마일스톤 프로그램이 제정된 로제타넷 표준을 활용하여 실제 시스템을 구현하고 그 경험과 교훈을 하이테크 사업체와 솔루션 공급자 사회 간에 공유하여 로제타넷 표준을 채택하고 개발 및 구현하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등, 그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활동이라면, 기반 프로그램은 로제타넷 표준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발전시켜서 로제타넷 표준의 품질과 채택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표준화 활동이다.

4.1 마일스톤 프로그램

2005년 현재 활동 중에 있는 마일스톤 프로그램은 eCustoms Declaration, Engineering Information Management, Material Composition, OMJ - Advanced, Payment, Product Catalog Information, RosettaNet Automated Enablement (RAE), Sales Reporting, Semiconductor Test Data Exchange, Service Contract Information Management, Shipment Booking and Status, Shipment Notification Management, TC Order To Cash (Phase 1), Warranty로 모두 14개가 있다. 각각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eCustomes Declaration

이 프로그램은 수출입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표준화와 자동화를 통해 단축시키고 개선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세계화가 진척되면서 국가 간의 통관 물류량이 증가하는데 반하여 여전히 수출입 통관 절차는 사람과 서류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이런 절차와 서류가 국가마다 상이해서 2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등,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이다. 로제타넷은 PIP3B18을 활용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서 파일럿을 완료한바 있고, 현재는 중국과 미국 및 유럽에서의 프로그램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Engineering Information Management

공학 정보는 주로 서류를 통해 교환되어 왔는데, 이것은 처리를 위해 서류상의 내용을 전자적인 형태로 다시 입력하고 변환해야 하는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한다. 로제타넷에서는 PIP2A10을 활용하여 이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교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다.

Material Composition

하이테크 산업에서는 법률상의 제약을 만족시키고, 설계상의 환경 요소를 개선하여 고객과 이해 관계자들이 필요로 할 경우 추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 자신들의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의 성분을 알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그러한 재료 구성 정보의 교환과 전달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PIP2A10과 PIP2A13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OMJ(Order Management in Japan) – Advanced

일본을 기반으로 하는 5개 이상의 기업들과 60개의 세계 각국의 거래 파트너 기업들이 B2B 주문 거래를 구현하는 프로그램으로,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OMJ 및 OMJ-Extended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 이미 완료된 프로그램의 연속선상에 있다. 이전의 프로그램 활동을 더욱 향상시켜서 로제타넷 표준의 채택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다.

Payment

이 프로그램은 빠른 현금 순환과 지불 정보의 흐름을 개선하여 수금 계정의 조정을 보다 유연하게 하는 단일 지불 프로세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데에 목표가 있다. SWIFT와 함께 PIP3C6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Product Catalog Information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 아이템의 구매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품 정보를 자동화하여 교환할 수 있게 하려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카탈로그 정보의 재입력 작업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PIP2A1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RosettaNet Automated Enablement(RAE)

보통 특정 기업에서 로제타넷을 구현하는 과정은 전담 프로젝트팀의 구성과 이들의 상당한 수작업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것은 자신의 회사에 맞는 구현 요구사항들을 정의하고 이를 거래 파트너와 구현해 가는 과정에서 현재의 로제타넷 PIP 구조로는 자동화되는 요소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로제타넷 구현의 시간과 비용을 늘려서 중소 규모의 기업에까지 확산시키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프

로그램은 TPIR(Trading Partner Implementation Requirements)-PIP이라는 새로운 PIP 스키마를 정의하여 번거로운 수작업 요소를 줄이고, 수작업에 의한 통합 요소 또한 TPIR-PF(Presentation Format)를 정의하여 전산화할 수 있게 명확하고 간편화한 다음, 이 둘을 로제타넷 레지스트리를 통해 공유하고자 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완료될 경우, 로제타넷 구현이 중소규모의 전산 인프라가 취약한 기업까지도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ales Reporting

제품 세일즈 정보를 세일즈 망의 단일의 혹은 다수의 위치에서 전송하기 위한 표준 프로세스를 설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정보를 생성하여 이용하려는 관련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관리 비용을 줄이고 정보의 흐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로 PIP4E1과 PIP4E2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Semiconductor Test Data Exchange

이것은 기초 소자 및 어셈블리 테스트 파트너들이 반도체의 테스트 데이터를 칩 설계자에게 분석을 위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Service Contract Information Management

이 프로그램은 서비스 용역 계약의 자동화된 관리를 지원하는 e-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역 계약 정보의 동기화된 View를 통해 보다 빠른 계약 처리와 효율적인 서비스의 전달 등의 여러 효과가 기대된다.

Shipment Booking and Status

선적회사, 물류 서비스 제공자 및 운송업자들 간의 양방향 통신을 제공함으로써 초기 선적시의 가예약, 확인 및 확정과 같은 절차와 예약 취소 및 선적 상태 정보의 효과적인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PIP 3B3, 3B12, 3B13, 3B14와 같이 여러 PIP들이 이용되고 있다.

Shipment Notification Management

거래 파트너들이 표준화된 선적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복잡한 선적 및 다자간 선적 통지 등을 가능하게 한다. Shipment Booking and Status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클러스터3의 세그먼트B에 속하는 여러 PIP(PIP3Bx)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TC Order To Cash(Phase 1)

이 프로그램은 통신 산업에서 주문 후 결제를 위한 e-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에 로제타넷을 적용하기 위한 시도로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으며, 아직까지 구체화된 내용이 공개된 상태는 아니다.

Warranty

반복적인 데이터 입력을 제거하고 제품 보증 정보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품 보증 클레임 프로세스의 자동화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PIP3A4, PIP3A5, PIP3C1, PIP6C1 및 PIP6C2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4.2 기반 프로그램

기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주목해야할 것이 바로 차

세대 구조 프로그램(Next Generation Architecture Program)이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 2002년경에 완료되었지만, 이 때부터 여러 기반 프로그램이 새로이 시작하게 된, 로제타넷 표준으로서는 매우 의미 있는 활동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로제타넷 표준에 존재했던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혁신하여, 새로이 전개되는 기술 요소와 발전 방향을 수용할 수 있도록 Modular PIP이라는 차세대 로제타넷 구조를 명확히 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상당한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크게는 기존에 DTD와 메시지 가이드라인이라는 이중적인 체계와 수작업을 통한 구현 및 해석 작업을 XML Schema와 BPSS를 도입하여 보다 정규화하고 자동화하였다는 점이라 하겠다. 기존에 MS Word 문서의 형태로 혼합된 형태로 제공되었던 PIP 스펙은 많은 부분이 XSD 파일과 Excel 파일 등으로 대체되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기반 프로그램은 Dictionary Architecture, Domain Model, Multiple Messaging Services, PIP® Specification Format, RNBD Development, RosettaNet Ready™, RNTD Development, RosettaNet Methodology로 모두 8개이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Dictionary Architecture, Domain Model 및 PIP Specification Format

이 프로그램들은 모두 차세대 구조 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프로그램이다. 로제타넷 용어사전의 현재 구조를 보다 확장성 있는 구조로 재편하고자 하는 Dictionary Architecture 프로그램에서는 사용자의 혼란을 줄이고, 표준 용어의 사용과 유지보수 절차를 보다 유연하게 할 도구의 활용 방안 등 다양한 접근방법을 모색 중에 있다. 현재는 프로그램의 초기 단계로 명확한 결과물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존의 RNTD와 RNBD를 아우를 수 있는 UML 도메인 모델과 관련 문서들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Domain Model 프로그램은 이와 연관되어서 계층적인 로제타넷 도메인 모델의 개발을 통해 하위 도메인 모델의 재사용성을 높여서 유사한 PIP 비즈니스 문서의 반복적인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일치를 줄이고, 전체 도메인 모델의 융통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재사용 가능한 XML과 UML 객체로 구성되는 도메인 모델을 통해 PIP 개발자는 쉽게 기존의 도메인 모델을 확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PIP® Specification Format 프로그램은 기계적인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기존의 PIP 스펙을 정규화 하는 것으로, XML Schema와 BPSS를 사용하여 이미 PIP4E1과 PIP4E2를 새로운 형태로 릴리즈 하는 등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 프로그램의 하나이다.

Multiple Messaging Services

RNIF가 다른 신뢰성 있는 메시징 서비스가 제시되지 않던 시절에 개발되어 로제타넷만의 독특한 메시징 기반의 역할을 훌륭히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를 구현하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겐 비용과 노력면에서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더구나 다른 메시징 서비스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로제타넷 비즈니스 문서 역시 RNIF를 벗어나 다른 메시징 환경 위에서도 성공적으로 구동될 필요가 증대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ebMS와 AS/2, WS-I Basic Profiles와 같은 여러 메시징 서비스 기반 위에서 로제타넷 PIP이 실행될 수 있도록 추상화된 메시징 스펙과 특정한 메시징 서비스로의 바인딩을 제공하여 상호운용성을 증대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RNBD Development 및 RNTD Development

예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로제타넷 비즈니스 용어사전과 기술 용어사전을 PIP 스펙의 개발에 발맞추어 개선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RosettaNet Ready™

로제타넷은 RNIF 구현과 PIP 구현이라는 크게 두 가지의 표준 인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공급자나 고객사에서 표준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테스트용 툴과 지원 서비스 및 참조 문서 등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쉽게 표준의 보급과 상호운용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초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RosettaNet Methodology

로제타넷 표준의 제정 절차에 대한 표준화를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마일스톤 프로그램과 기본 프로그램들 간의 상호 조정과 결과물 정리 및 PIP 등의 표준 제정 절차와 방법론 정립 등과 같은 로제타넷 전반의 관리적인 내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5. 결론

로제타넷 표준은 특정 솔루션이나 요소기술 표준에 치중하는 여타 표준화 방식과는 달리, 하이테크 산업의 수직적인 공급망에 대해 특화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실행시키면서, 차츰 그 적용 대상을 넓혀가는 실무적인 접근을 취함으로써 그 표준화의 결과가 수혜자가 될 기업들에게 명확히 가시화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점이 그동안 짧은 역사를 가진 로제타넷 표준이 이토록 많은 국가와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확산되게 된 근본 원인의 하나라 할 수 있겠다.

현재 로제타넷은 차세대 구조를 적용하여 변화하는 표준 기술과 e-비즈니스 환경에 혁신적으로 적응하고자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노력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우선 기존의 RNIF v1.1을 사용하는 회

원사들이 RNIF v2.0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로제타넷 비즈니스 문서의 패키징과 처리과정에서 붙어지는 문제인 큰 XML 문서의 효과적인 처리와 암호화 과정에서의 성능 향상 방안의 모색, 보다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할 허브의 중계 기능, 그리고 ebXML과 같은 유력한 e-비즈니스 표준과의 조율 등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특정 표준이 전체 e-비즈니스를 망라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각자 특화된 영역을 중심으로 차츰 공존과 융합을 모색해 갈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비교적 탄탄한 실행 경험을 가지고 있는 로제타넷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에 있다고 하겠다.

그동안 국내 로제타넷 보급 현황은 IT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던 게 사실이다. 초기에 발 빠르게 로제타넷의 도입에 대응해 왔던 점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로제타넷 입지는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과 같은 여타 아시안 국가에 비해 계속해서 축소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게 한다. 물론 국내의 산업적 특징과 경기 문제 등 이를 감안해줄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선도적인 기업들의 주도적인 자세가 많이 아쉬운 상황이라고 하겠다. 2005년에는 보다 진전된 IT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국내 로제타넷 활성화를 통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전자상거래 표준화 통합포럼, 전자상거래 표준화 로드맵 v.3, 전자상거래 표준화 통합포럼, 2003. 2월.
2. 김상균 외, “로제타넷이 떠오른다,” 2002.
3.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전자상거래 표준화 통합포럼 구성 및 운용, 2001. 12.
4. BizTalk, [http : //www.biztalk.org](http://www.biztalk.org).
5. ebXML : Electronic Business using eXtensible Markup Language, <http://www.ebxml.org>.
6. 한국전산원, e-비즈니스 기반기술 프레임워크, NCA IV RER 03004, 한국전산원, 2003. 12.
7. RosettaNet, RosettaNet Implementation Framework : Core Specification, 2001. 1.
8. [http : //www.rosettanet.org](http://www.rosettanet.org) 